

울산 장생포선 폐선, 공장 증설·공원 부지로 재탄생

- 민생토론회(2.21) 후속조치... 장생포선 폐선 고시 완료 · 연내 용도폐지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8일 '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.

* 장생포선(태화강역~장생포역, 3.6km)은 유류수송 노선이었으나 '18년 이후 운행 중단

○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,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.

□ 이에 앞선 3월,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.9km 구간 해당 부지(27,176㎡)에 2,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.

○ 전체 폐선부지 중 83%(22,442㎡)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·작업장, 저장창고,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, 잔여지 17%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·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.

□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되었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.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찬희 (044-201-3975)
			사무관	유용일 (044-201-3971)

참고

장생포선 현황 및 폐선부지 활용구간 위치도

